

일본의 면방적

- 산지와 함께 사업하며 존재감 높이고 있어 <1/2>

◎ 후지보 텍스타일 - 기획 제안형 기업을 목표로, 후지보만이 만들 수 있는 생지 개발

후지보 텍스타일의 패션 텍스타일 센터(fashion textile center : FTC)가 시즈오카현(靜岡縣) 하마마쓰(浜松)시로 옮긴 것은 2007년 9월이었으며 그 때부터 꼭 2년이 지났는데, 이 센터는 이 회사가 신상품을 개발하는 거점이기도 하면서 텍스타일의 개발 업무를 맡아서 잘 다루고 있다. FTC는 현재의 스태프(staff)가 영업에 4명, 생산에 4명, 영업 사무 등에 2명으로 모두 10명이 운영하고 있다.

후지보 텍스타일이 취급하는 상품은 선염 팬시(先染 fancy) 직물, 무지 염색(無地 染色 ; 浸染), 교직 직물 등이며 부인 아우터용 소재 중심이다. 판매하는 환경이 어렵기는 한데 “가치와 가격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존재감이 있는 텍스타일 기획 제안형 기업이 되고 싶다.”고 영업 부장은 말하고 있다.

2008년 3월기에도 흑자였으며 2009년 3월기에는 수지가 엇비슷하였는데 2010년 3월에는 상당히 수익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급하는 양(量)이 줄어들고 저가격으로 흐르려는 경향이 있으며 어패럴이 잘 팔리지 않고 백화점에서의 부인복 매장이 잘 안도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 있다.

특히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봄에 걸쳐서는 단숨에 수요가 줄어 2008년

3월을 100으로 보면 2009년 3월은 90 ~ 95%, 2010년 3월은 70 ~ 80%로 예측된다. 특히 2009년 4 ~ 9월의 경기 악화는 심각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회사는 일본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후지보 텍스타일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텍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호쿠리쿠(北陸)와 하마마쓰(浜松)와의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 共同 開發)으로 장섬유·단섬유·수용성 비닐론(水溶性 vinylon)으로 나눈 초 복합 직물(超 複合 織物) 등이 있다.

서로 맞잡고 개발할 상대로서는, 어패럴이나 생지상·어패럴과 같이 요(要)는 어패럴 대응이 중심이 되고 있다. 생지상에게 자유롭게 판매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의 어패럴을 알 수 없는 장사는 기본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패럴이 어떤 옷을 만드느냐에 따라 텍스타일을 기획하게끔 제안하고 있다.

후지보 텍스타일은 어떤 면에서는 셔츠지의 산지 도매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셔츠 어패럴(shirts apparel), 셔츠 생지상(shirts 生地商)은 크게 줄고 있다. 셔츠 생지상의 거래는 태양 섬유(太陽 纖維)나 산세이(三政) 등이 있다. 셔츠, 캐주얼 셔츠는 종합 어패럴의 멘즈 부문(men's 部門)과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회사는 “2010년 추동절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만한 상품으로는 저가격 방향으로 기울면서도 특화(特化) 중에서도 특화된 것이 아니면 어패럴은 활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실에서부터 직물·가공까지의 노하우가 압축된 것을 제안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레이디스(ladies)의 일본식 겉옷 같은 재킷 생지는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조이너(joiner : 결합자)”를 사용하여, 나일론(nylon), 수용성 비닐론(水溶性 vinylon)을 사용하는 것은 틈이 생긴 부분이며, 이 부분은 슬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가공은 고야마(小山) 공장의 액류 염색을 사용하고 있다. 방적, 직포, 염색 가공 모두가 그룹으로서의 종합력이 만들어 낸 상품이며, 시즌(season : 성수기)에는 2만 미터(m)를 판매할 계획이다. 어패럴로 공급되는 가격은 1 m당 1,300 엔 내외이다.

레이디스용 블라우스(ladies blouse)감은 톱사(top 絲) 직물로 선염 체크와 샴브레이(chambray)의 두 개 마크가 있다. 모리린의 ‘투르판 로드(turpan road)’와 면의 교직 직물은 투르판 로드와 콤팩트사 60수와 80수를 사용하고 있다. 선염 오건디(先染 organdie)는 고야마(小山) 공장의 노하우로 이 회사만이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상품도 있다.

오이다(大分) 공장의 면·라미(ramie) 60수, 면·라미 80수 강연사(強撚絲)는 사용하는 데는 가볍고, 얇고, 선염이나 후염이 모두 가능하다.

후지보 텍스타일의 강점은 실, 직물, 가공을 모두 후지보 그룹내 공장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이 어패럴을 대상으로 소로트, 다품종, 단납기와 기동력으로 어패럴의 니즈에 알맞게 처리할 수 있는데, 시직 점수(試織 點數)가 시즌(season : 盛需期)이면 100점을 넘는다.♣